



월별 보고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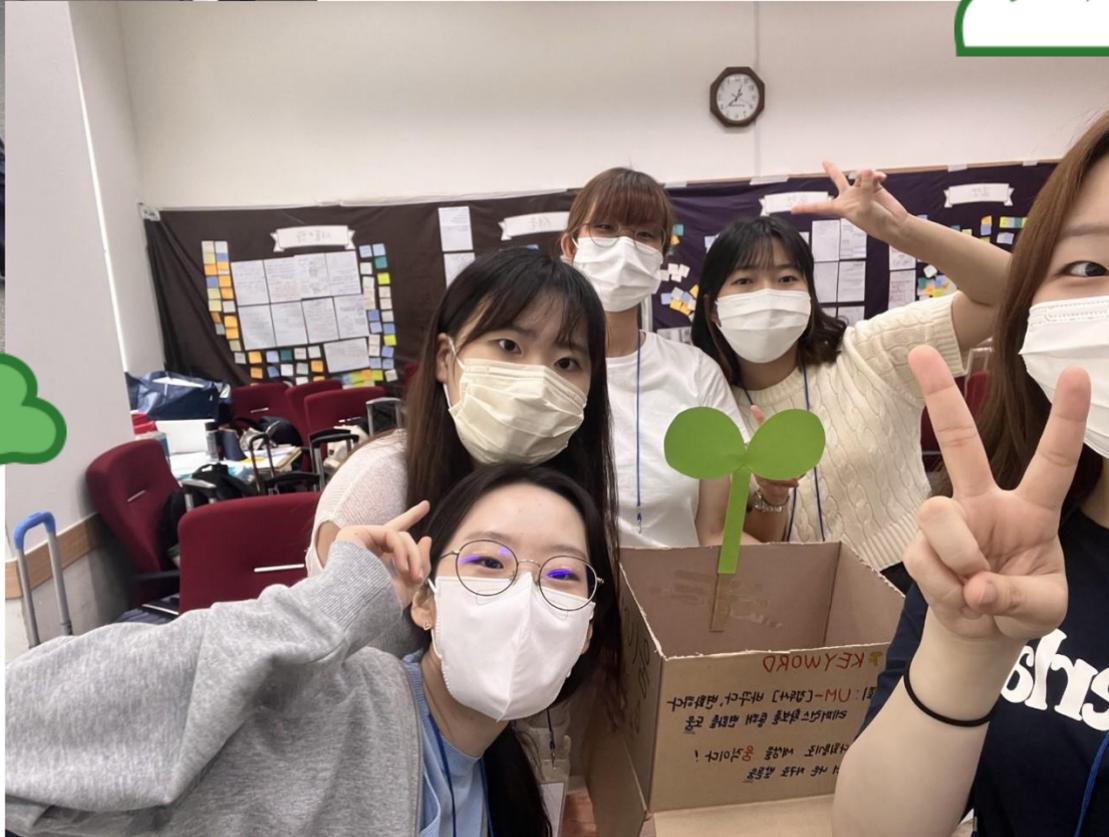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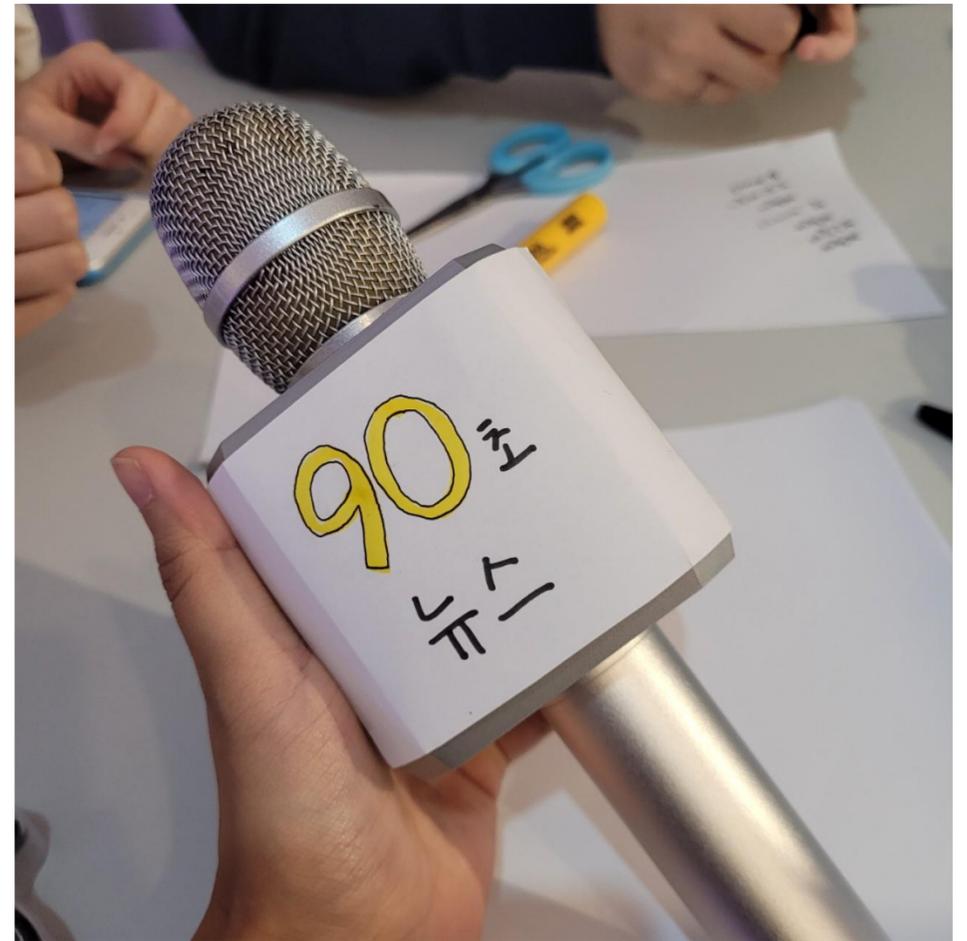
Team 움(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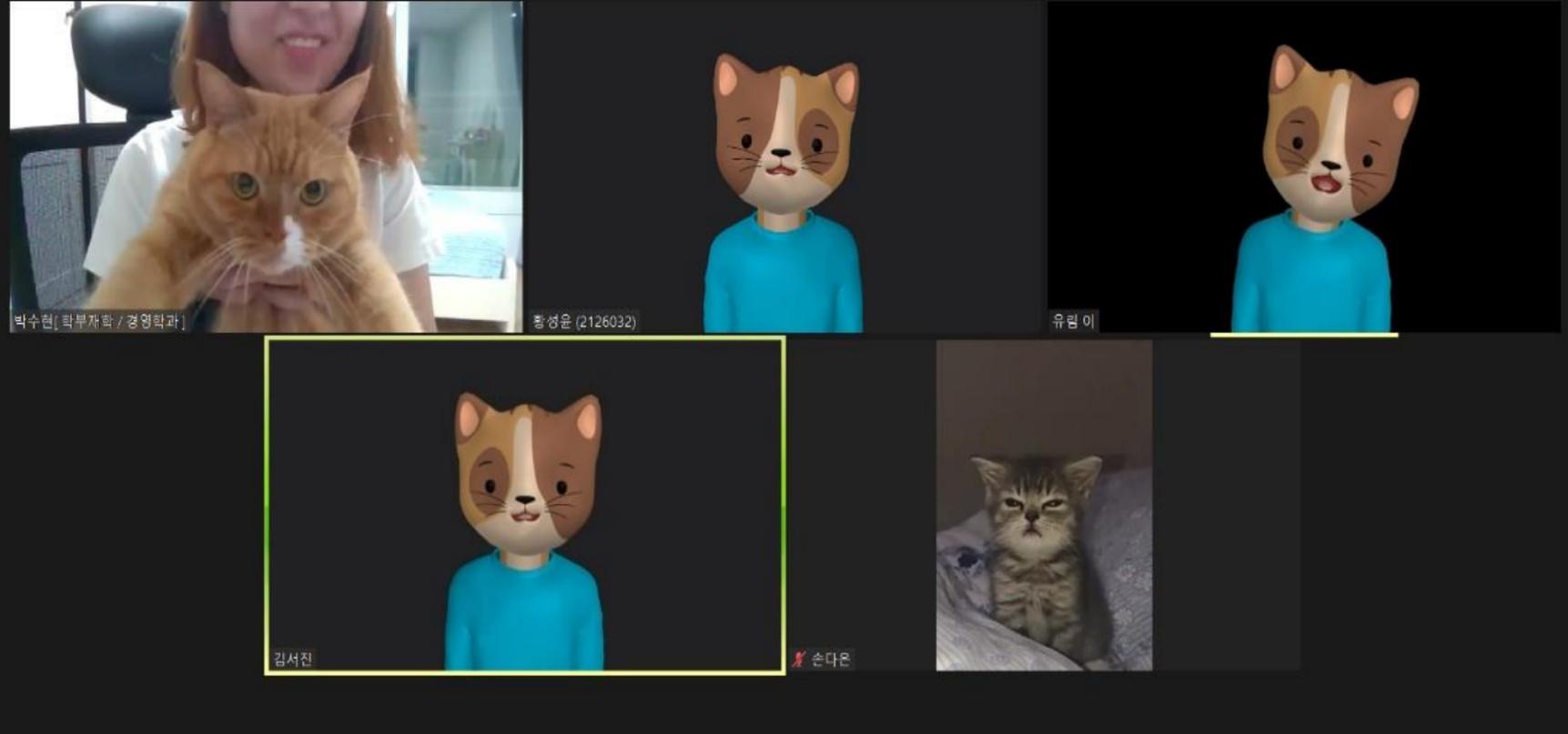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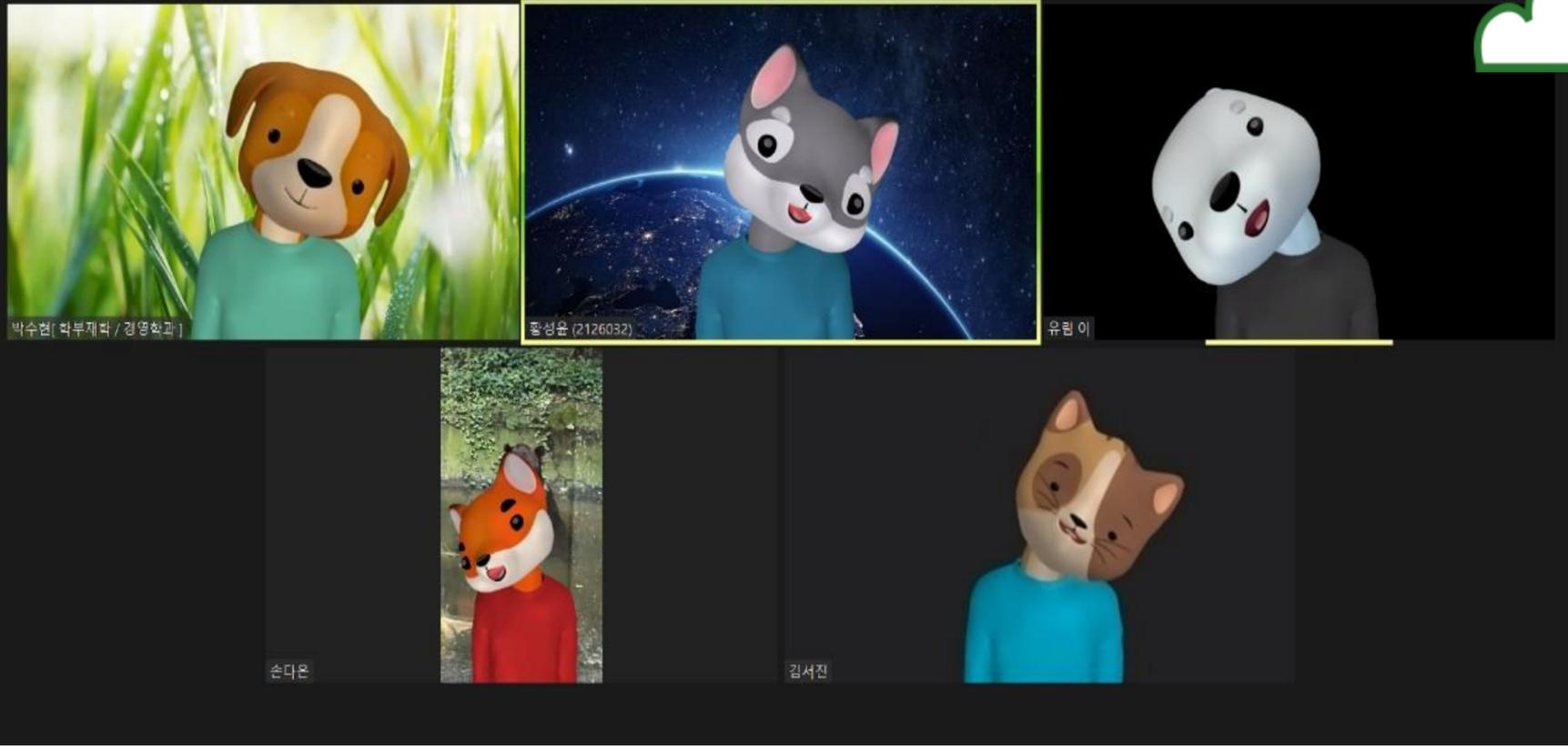


프로젝트 소개영상 제작



대전 전체 교육





대면 및 비대면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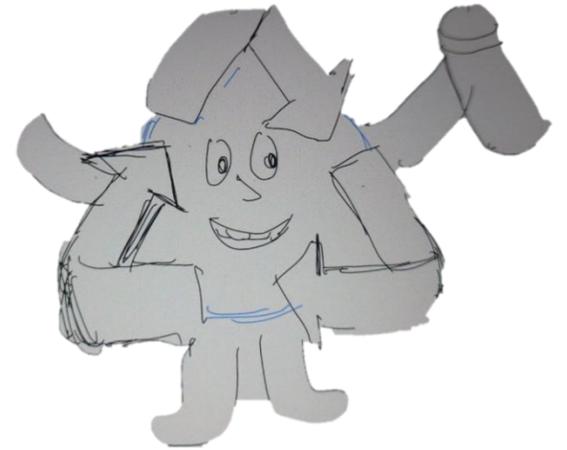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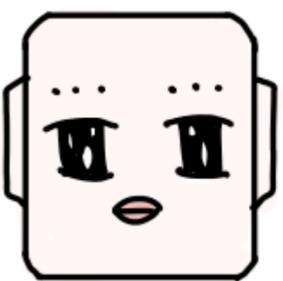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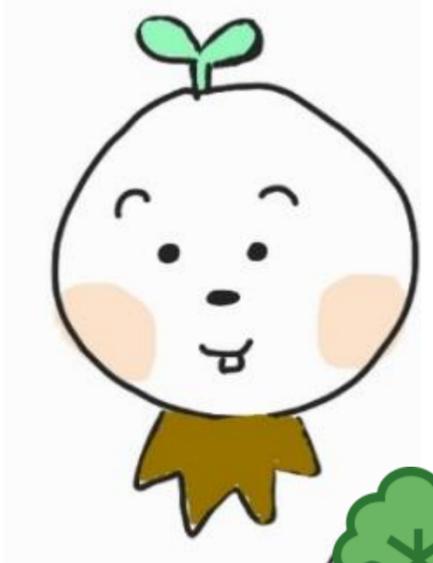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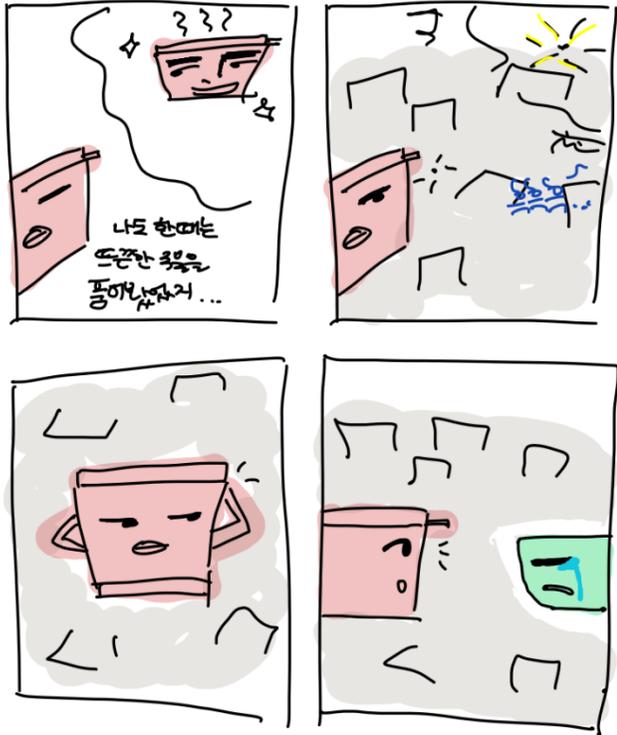




텀블러 오프라인 행사 답사 및 체험



음배 캐릭터 공모전



활동평가

김서진

배달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에 동참할 업체를 찾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리고 업체 사장님들과 컨택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친환경 사회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본 시간이었다. 비록 단기적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 나아가, 많은 업체에 좋은 선례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박수현

9월 한 달은 방황의 시기였다. 배달 다회용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프로젝트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사업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의 과정들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패하고 다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더불어 '소비자의 환경인식 개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넘어 '다회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가 다회용기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라는 우리 팀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손다운

여러 업체와 컨택해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환경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선순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평가

이유림

맨 땅의 헤딩을 거듭하며 매우 유의미한 과정을 지냈다. 5개월 간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한 달이 아닐까 싶다. 다양한 업체와 컨택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환경연합과의 미팅에서 '순환'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우리가 모인 이유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정에서 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다. 10월의 과정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황성윤

직접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컨택해보는 과정을 겪으며,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보호 방안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대부분 환경보다 다른 요인이 더 우선순위에 있거나, 환경 보호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동기 혹은 기반이 부족한 경우들이었다. 이에 우리 팀이 매개로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게 되었으며, 회의를 거듭할수록 그 윤곽이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의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 감사하다.



움의 9월은 어땠나요?

김서진

움의 9월은 정말 쏠살같이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다회용기 대여 프로젝트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고 바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스타툰과 같은 여러 방안을 생각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때 우리 팀이 가졌던 고민을 통해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박수현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해본 건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오히려 그러한 실패들이 프로젝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9월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배움으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손다운

움의 9월은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제 컨택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다른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팀원들의 꾸준한 관심을 통해 우리의 목적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다른 사업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움의 9월은 어땠나요?



이유림

한마디로 '축구공' 같은 한 달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음식점에 연락해서 땡- 차이고, 대학교에 연락해서 땡- 차이고, 세척 업체에 연락해서 땡- 차이고, 예산의 한계에 땡- 차이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팀원들끼리 계속해서 소통하며 나름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배웠다. 더욱 유연하고 튼실해져, 이전 여기저기 몸을 사방에 부딪히며 튀어다니는 '탱탱볼'이 되려고 한다~!

황성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로 거의 모든 요소를 바꿔나가는 데 집중한 한 달이었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실현 가능성'을 꾸준히 고민해보며 보다 현실성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자 노력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몇 달 간 구상해 온 바를 바꾸는 것이 이후 일정에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도전적이며 큰 변화를 추구한 결과 현재 이 단계까지는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대안을 생각해보며 나름의 기준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선택해나가는 과정을 밟아갔고, 이에 스스로도 더 깊이있게 성장할 수 있던 9월이다.

